

선학원 '근대불교역사관' 첫삽 뜨다

20일 중앙선원서 기공식... 2015년 준공 예정

선학원 중앙선원이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으로 변화한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 안국동 중앙선원 마당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새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라며 기공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관의 원만성취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장윤석(새누리당 불자회장)·김장실(새누리당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선학원의 불사가 원만회향되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역사관은 814㎡ 면적에 전통한옥 양식의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1991㎡ 규모로 지어진다. 힐링센터, 전시관, 전통문화 체험관, 소풍센터, 대강당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은 35억 원, 선학원은 29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은 내년 12월 준공하고, 2016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선학원은 11월 20일 중앙선원 마당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국경을 초월해 우리는 하나"

자승 스님, 16일 이주민 한마당 자비나눔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이주민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했다. 경기도 오산 시민회관에서 열린 어울림 마당에는 네 팔,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제화시대 이자 다문화사회인 지금 이주민들, 결혼이주여성 여러분은 중요한 사회 구성

원"이라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우정을 나누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계 이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으며, 배구대회에 앞서 직접 시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자승 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오산 행복한국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16일 자비나눔 방문한 이주민 어울림 마당에서 주최 단체인 마주협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내년 예산 480억원... 신도시 포교 등 역점

조계종 중앙총회 200회 정기회 이모저모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일반회계 240억 4천여 만원과 특별회계 239억 7천여 만원을 합친 것으로 올해와 대비해 총 7.4%로 증가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은 11월 18일 속개한 200차 정기회에서 2015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을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 기초는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대신 휴일수당 조정을 통한 인건비 축소, 일반 사업비의 예산을 줄였다.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 총무행정이 이뤄지는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문화부, 홍보부, 포교원 등은 예산이 축소됐다. 하지만 종교복지 등의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 재무부와 내년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진행하는 사회부는 예산이 각각 22%, 8%로 증액됐다.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집중을 위해 신도시 종교복지 확보로 5억 원, 승려복지에 2억 원,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2억 5천 800 만원이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또한 내년에도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에 3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밝힌 대로 중앙분담금을 동결했다. 직할분담금도 동결됐지만 약사사와 선암사 직할 전환으로 소폭 상승했다. 법인분담금은 선학원이 1억 원으로 동결됐고, 법인등록을 한 대가회는 2000만 원이 감액됐다. 문화

재판람료 분담금은 올해 대비 6%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중앙총회의원 장명 스님은 낮은 예산 집행률을 예로 들며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스님은 "2013년도 예산 집행률은 93%인데 올해 예산 집행률은 10월 말까지 73.41%"라며 "예산은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대비해서 짜야지 총액만 맞추서 편성하면 안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 제기

승려복지 대상자 전체 종도 확대

중앙~사찰신도회 연계 법안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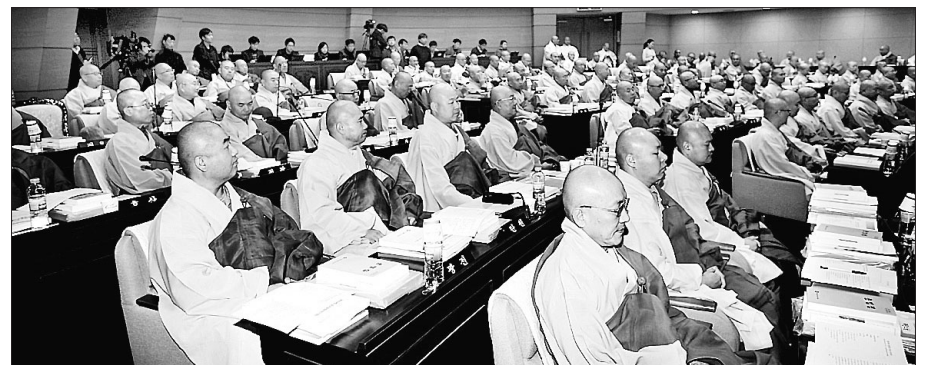
원정 스님 등 대종사 전행 동의도

거친 언행·책임 방기는 개선돼야

이번 총회에는 현안 쟁점들이 잇달아 개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7일 200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행연금금은 폐지되고 대신 현재 무소득·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에 지급되던 의료비 등을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제 수지자'로 지원을 확대했다. 단, 수혜 대상은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종단에 승려복지



조계종 중앙총회 제200회 정기회 모습. 16대 개원 총회로 관심을 모은 만큼 여러 성과를 냈지만 의원들의 거친 언행과 책임 방기는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업무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이를 실행하는 '승려복지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승려복지회는 기존의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로 이관된다.

또 종단과 교구가 승려의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범위와 방법, 절차는 총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진료비와 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된다.

조계종 중앙총회가 11월 18일 수정 가결한 '신도법 개정안'은 중앙·교구신도회 등 각종 신도조직의 구성, 회원 자격, 주요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중앙-교구-사찰로 이어지는 신도회의의 체계가 자리잡게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종단 신도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을 신도포계 품수자로 한정하는 조항은 의원들의 반대로 현행대로 존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총회의원 주경 스님은

"조계종 등록과 품수 신도가 3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찰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먼 미래에 가능한 법안이다. 현실에 적용됐을 경우 일선 사찰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총회는 원로의원 원정 스님과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반야사 주지 종진 스님에 대한 대종사 특별전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총회는 각종 인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짓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200회 정기회는 16대 개원 중앙총회로 이목을 끌었지만 거친 언행과 책임 방기로 구태를 재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개원 총회 첫째 날부터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영담 스님의 출출 신상발언과 이를 저지하는 불교광장 측 총회의원 스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을 이어가며 행으로 운영됐다. 또 총회에 부여된 감사기도 '중무행정감사 시행규칙'을 어겨가며 축소 집행해 물의를 빚었다. 신성민 기자

"승가 교육 불사 다시 시작합니다"

인터뷰- 조계종 교육원장 연임한 현응 스님

표준·단계별 교육 과정 정립

삼장원 등 수행기관 확대도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조계종 중앙총회 200회 정기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연임을 확정시킨 것이다. 현응 스님은 개원 첫 날인 11월 11일 교육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현응 스님은 1995년 교육원 별원 이후 처음으로 재임하는 역사를 새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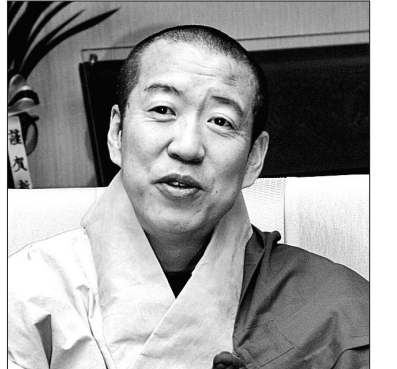
스님은 향후 5년 간 종단의 승가 교육 전반을 다시 이끌어가게 됐다. 현응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의 소감과 포부 등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현응 스님은 "교육원의 모토가 '자비를 구현하고 사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가교육의 최종 목표"라면서 "승가 교육 불사는 이제 시작이다. 교육 불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2009년 취임해 5년동안 교육원을 이끌면서 승가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승가 교육을 행자부터 기본·전문·특수·연수 교육으로 단계별로 나눴고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교재는 한문세대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한글화했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불교학교를 개

원·정착했으며, 삼장원·염불원 등 수행기관 확대를 제도화했다. 연수교육도 큰 성과였다.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성지 순례 등도 도입했다. 사실상 승가교육의 전반을 바꿔 놓은 것이다. 현응 스님을 두고 '일 중독자'는 수식이 붙은 것도 이 같이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현응 스님은 교육불사의 '시중 2'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잡히지 않았지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교육 불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지난 5년간의 사업이 모두 잘된 것은 아니다. 착오도 있었고 미진한 점도 없지 않지만, 종도들의 격려가 있어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면서 "자체평가를 통해 그간 교육개혁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화를 이끌어내겠다"



조계종 교육원장에 재임한 현응 스님

고 말했다. 이어 "시중 2'든 '2기'든 3개월기량 안 거 결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승가교육 방향을 구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승가교육의 가치에 대해 현응 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스님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 목표"라면서 "2009년 임명 당시 초심을 되새기면서 소임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원로스님의 명의 도용과 명예 훼손까지..."

- 전국비구니회, 이제 참으로 바로 설 때 -

지난 10월 30일 비구니 원로위원 12분 스님들의 이름으로 "비구니 승가의 정법안장을 염려하며..."라는 심리의 글이 발표되었다.

이 내용의 귀결은 "현재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임시총회를 통해 문제의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적 명분을 지지하려는 운영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며, 과연 원로스님들의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12분 중에 7분은 회장 명우스님의 전화를 받고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거절하셨다고 하였다. 원로 묘관스님께서 "나는 거절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올렸으니 내 이름으로 반박 성명서를 내어도 좋다."고 하였다. 또 다른 원로스님들도 "내 이름 올리지 마세요." "나는 찬성 안 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원로위원인 줄도 몰랐어요."라 하셨다고 하였다. 또는 "스님께서 지금 그런 일에 간여하시기 어렵다"고 시자가 전했다 하며, 어떤 시자는 다만 책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계환스님을 사퇴시키는 조건으로 이름을 올려도 좋다." 라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한 순간 우리의 심경을 착잡하게 했던 원로스님들의 심리의 글은 원로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원로스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원로스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바로 전국비구니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이제 더 이상 명우스님과 계환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좋아요"

전 비구니회 회장이시고 현 운문사 회주이신 명성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은 이 일에 대해 심히 염려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좋아요."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우리 비구니회가 희망적이에요."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구니원로위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나요?" 라고 되물으셨으며, 다시 "원로스님들도 이 문제를 다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 하시며 말씀을 아끼셨다.

우리는 이제 1600여 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전통을 이어온 한국비구니 위상이 다시 한번 바로 서야함을 통감한다. 만약 끝내 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이 공의를 외면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임시총회를 그들만의 운영위원회로써 대체한 전국비구니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고 새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원로스님 그리고 6천여 비구니들의 뜻과 힘이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58(2014)년 11월 20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혜운. 행법. 임대. 정현